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7년도 표어 ◎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엡2:4)

◎ 생활지침 ◎

- 1.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
-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자
-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교회설립 제 6주년 · 추수감사절 행사

오늘 하이든의 “천지창조” 연주

다음 주일엔 성찬식 · 감사예배 · 임직식

오늘 찬양예배는 할렐루야 찬양대(대장 윤봉준 장로)가 주관하여 교회설립 6주년 기념 감사 및 '97 추수감사 찬양예배로 드린다.

오늘 찬양은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로 서곡과 I · II · III부로 구성된 합창, 중창, 독창 등 총 34곡 전곡을 연주하게 된다.

지휘는 박정선 집사이며 오르간은 조은주 집사, 피아노는 정은영 집사가 연주한다. 독창은 고윤이(소프라노), 강항구(테너), 김원호(베이스)가 맡았다.

◇ 다음 주일 행사 ◇

다음 주일은 교회설립기념주일 및 97 추수감사절이다.

감사예배로 드리는 I · II · III부 예배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며 감사헌금을 드리는 순서를 갖는다. 교회학교에서는 부서별로 감사와 축하의 시간을 갖는다.

다음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는 제 4대 안수집사 및 권사 임직식이 있다. 임직식에는 선물이나 증명하는 순서를 모두 생략하고 참가하는 성도 모두가 특별헌금을 드리는 순서를 갖는다.

목회자세미나 · 성경대학 종강

17일(월)과 30일(주일)에 각각 수료식

제 12학기 목회자세미나가 내일(17일) 서울 강남YMCA대강당에서 종강한다. 이번 학기는 지난 9월 8일에 개강하여 추석기간인 9월15일을 제외한 10주 동안 매주 월요일에 진행되었다.

내일 수료식에서는 12학기를 모두 수강한 목회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네 학기를 수료한 목회자에게 수료증이 수여된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학기 등록자는 689명이며, 이번에 네 학기를 수강하고 수료하는 목회자는 총 69명으로 이들은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동문회원이 된다.

제 12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는 “교회와 국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제 1교시 강의는 이종윤 목사의 로마서 강해로 진행되었는데 로마서 12 ~ 14장을 주제에 맞추어 심도있게 설교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제 2교시 강의는 올해 대통령 선거 등 국가적인 이슈를 염두에 둔 ‘교회와 국가’라는 세미나 주제에 따라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허영 연세대교수),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한 교회의 사명(한완상 방송대 총장),

교회와 경제질서(송자 명지대총장), 교회와 바른 선거(김상철 한미우호협회장 · 변호사), 독일통일에 미친 독일교회의 역할(박종화 기장총무), 북한교회의 실정과 재건을 위한 제안(조창호 귀환용사), 21세기 한국사회의 정신문화와 교회(이영덕 정신문화연구원원장) 등의 내용을 다뤘다. 또 다섯 명의 대통령 후보를 초청해 교회와 국가에 관한 후보들의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서울성경대학 수강인원

강좌	수강인원
마가복음	38명
베드로서	51명
아가	65명
다니엘	41명
욥기(아담반)	89명
음악교실	46명
합계	330명

모두 종강한다.

서울성경대학 각 반 및 음악교실의 수강인원은 위의 <표>와 같다.

서울성경대학 이번 학기 수료식은 11월 30일(주일) 찬양예배시에 갖게 된다.

✦ 순례자 컬럼 ✦

애통하는 자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은 좋은 시간이요, 행복이지 배개를 적시도록 울어야 하는 것들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게 된다고 가르치신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시무룩해지거나 또는 눈물만 짜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기 시작한 애통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또한 애통하는 자가 적은 것도 슬퍼해야 한다. 이처럼 통회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있다고 하셨다. 여기서 위로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 받지 못한 자는 진정한 위로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으니 그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신미숙 전도사 청빙 유치부 지도



신미숙 전도사가 유치부 지도로 청빙되었다.

신 전도사는 1966년 생으로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하였고

현재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이다. 중국에 견습선교사로 파송된 바 있으며 모문중앙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봉직한 경력을 갖고 있다.

그간 유치부를 지도하던 최양순전도사는 개인사정으로 사임하며 신미숙 전도사는 12월부터 유치부를 지도할 예정이다.

강해설교 여호수아서

24장 1 - 33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 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 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임이니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니오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24:1 - 33).



이종운 목사

여호수아는 자기 생명이 끝나는 것을 예견하고 자기가 죽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버릴 것을 염려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겔에 모으고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과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1. 믿음의 선택

여호수아가 가진 믿음은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도우신다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논리적으로 회고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가정과 자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지도자가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정복의 오랜 전쟁 기간 동안 함께 하시사 승리를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옛 일들을 기억하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크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명령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도 못한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호수아는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외칩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도 만만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범한 죄와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것들을 버리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2. 자원하는 선택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택할 신은 누구입니까? 갈대아 우르의 신 아니면 애굽의 신 혹은 아모리 사람들의 신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할 때 우리는 옛 사람 때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자기 사랑, 물질과 명예에 대한 욕심, 쾌락과 자

여호수아의 선택

기 우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섬길 자를 택하라고 한 것은 일회적 선택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적인 선택을 의미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그의 고백은 “나는 여호와만 섬길 것을 선택했다. 지금도 나는 여호와만 섬긴다. 앞으로도 영원히 나는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섬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할 때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스스로 의지적으로 결단하게 하되 감정적이 아닌 지적 선택을 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신 분이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택하여 그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3. 진실한 선택

여호수아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하나님만 섬길 것을 백성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선택한 바를 밝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 것인 양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이 그리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19 - 20절)고 무섭게 경고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거듭하여 질문을 했고 백성들이 이에 확답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록되었고 큰 돌을 취하여 언약의 증표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를 보면 후대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삿2:10 - 12).

이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세대가 지나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올 때 그들이 과연 물질문명의 홍탕 물 속에서 오염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믿음의 유산을 잘 지키기 위해 우리는 여호수아와 함께 외쳐야 할 말이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목회자신학세미나 지상중계

“교회와 경제질서”

이 글은 10월 20일 목회자신학세미나에서
송자 교수(명지대 총장)의 강연을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요약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교회는 이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 경제와는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나?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에서 경제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시험을 이기셨다. 그러므로 교회가 경제에 관하여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경제인 또는 기업인 나아가서는 일반 사람들이 바른 경제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유롭게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일 것이다.

21세기는 모든 경제질서가 정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가게 되므로 민간기업의 지도자인 경영자가 어떠한 경영관을 가지는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경영자는 어떠한 경제관을 가져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21세기 기업인의 경영철학

21세기의 우리의 기업인은 첫째로 모든 일을 경제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요즈음의 표현을 빌리면 정치적으로 경제를 하려는 의식을 버리자는 것이다.

둘째로는 지나간 우리의 경제는 관이 주도

하였지만 이제는 민이 주도한다는 의식이 필요하다.

셋째로는 오늘의 경제는 국경이나 국적이 없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미래는 경제적인 면에서 국가보다는 민족이 더 중요하여 질 것이다. 국경이 없는 경제에서는 우리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경제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1세기의 기업인의 혁신적인 경영철학은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가?

첫째로 섬기는 경영철학이 일어나야 한다. 기업을 한다는 것은 섬기는 것이라는 철학을 보여주어야 한다.

둘째로 제일주의 경영철학을 가져야 한다. 혁신된 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최상의 것으로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와같이 21세기를 향한 기업인의 경영철학은 경제의식의 변화에 의한 기업혁신에서 찾아야 한다.

2.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경영자

경영자를 돈을 버는 사람으로만 이해하는 시대는 지나 갔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모든 조직규모가 대형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이 조

직들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 그러므로 경영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경영자로 택하셨다는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경영을 할 때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경영자의 할 일과 같다고 본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 즉 경영자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면 경영자가 섬겨야 할 작은 예수들은 누구인가? 첫째는 고객들이다.

둘째로는 종업원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경영자는 결국엔 종업원의 기업, 종업원에 의한 기업, 종업원을 위한 기업을 경영할 줄 아는 경영자다.

셋째로 경영자는 지역사회를 섬겨야 한다. 어느 곳에 가서 일을 하든지 그 지역에도 도움이 되어야 하며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려는 기업을 경영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투자한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경영자들이 되어야 한다.

단순하게 이익만을 위하여 행동하는 경영자가 아니고, 이 땅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사명감을 가지고 섬기는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

경영자는 경영을 하는 것은 봉사하는 것이라는 신조를 생활화 하여야 한다. 이렇게 섬기는 경영자가 많으면 미래 사회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경영자의 시대가 되고 이 땅은 천국이 된다. 이러한 경영자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자.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이 되지 않을까? 탕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서기가 두렵기만 합니다.

우선 내가 해야 할 일은 철저한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허물과 죄를 안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는 그의 죄를 회개할 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임직일까지 남아있는 죄를 철저히 찾아내어 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고 싶습니다. 집사로서 교회를 받들며 맡기신 직분을 감당할 때는 먼저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알아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회(말씀목회)와도 일치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표로 하는 것과 계획하여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잘 성취될 수 있도록 교회에 순종하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수집사 임직을 받기에 앞서

회개와 사랑과 결단과 ...

이상호 집사(7교구)

주님께서는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이 서로 믿고 신뢰하며 용서하고 양보하면서 화평을 이루며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주님께 먼저 부르심을 입은 중들이 본을 보여야 하므로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아 기록하신 말씀으로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고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종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사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일 4:7)고 하신 말씀은 성도가 성도를, 성도가 교회를, 교회가 성도를 사랑으로 하나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임을 받고 앞서 있는 자가 교회에서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고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교회의 화평과 사랑을 깰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서울교회가 항상 사랑으로 하나되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이제 안수집사로 임직되면 지금보다 마귀들과의 영적 전투는 더 심하여 질 것이고 더 많은 주님의 짐을 져야 될 줄로 알지만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를 힘입고 “주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신 주님을 의지해서 주의 일을 한다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탕자가 그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들로 회복된 것같이 주님의 은혜로 선하고 착한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곡히 기도드릴 뿐입니다.

제 2회 목회자 신학심포지엄 개최

1998년 1월 12일 ~ 13일까지 1박 2일간
김치동문회 주최, 한국교회갱신연구원 후원

제 2회 '교회갱신과 성장을 위한 목회자 신학심포지엄'이 1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2일 간 광림수도원(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소재, ☎ 0347-66-4917)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교회갱신연구원(KIMCHI) 동문회(회장 차정운목사)가 주최하고 서울교회 한국교회갱신연구원(원장 이종윤목사)이 후원한다. 주제는 "98년 목회 계획과 성장". 개회예배 설교는 이종윤목사

(서울교회)가 맡는다. 첫날에는 이정익 목사(신촌성결교회)가 "창조적 목회와 성장", 이승하 목사(해방교회)가 "이상적인 목회계획"이라는 내용의 특강을 하며 정장복 교수(장신대)가 "98년 목회계획과 성장"이라는 제하의 주제강연을 한다.

둘째날 새벽기도회는 이동현 목사(평화교회)가 인도하며,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가 "강해설교와 성장 목회", 이성희 목사(연동교회)가 "도시교회의 미래목회"라는 제하의 특강을 하며 민경배 박사(전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장)가 종강예배 설교를 한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 동문회는 목회자신학세미나 내하기를 수료한 목회자들의 모임으로 1994년 3월에 창립되었다. 현재

이 동문회는 한국교회의 연합과 갱신의 초석이 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거듭되는 목회자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터득하고 교회갱신의 도전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바른 목회를 위해 서로 격려하고 목양을 위한 자료들을 수집, 교환하고 있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과 김치 동문회가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의 참가대상은 목사와 전도사 등 전국의 목회자이며, 신청은 한국교회갱신연구원 동문회(02-3426-4236) 또는 한국교회갱신연구원(02-517-7651/5)으로 하면 된다. 등록비는 3만원.

신임서리집사 교육 및 면담

1998년도 신임 서리집사 후보 면접 및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통보를 받은 서리 집사 후보는 가능한 시간을 택하여 교육은 3차 중 1회, 면담은 2차 중 1회만 참석하면 된다. 1998년 서리집사 임명식은 다음 달 7일(주일) I·II·III부 예배 시에 있다.

* 교육

- 1차: 19일(수) I부 예배 후 403호
- 2차: 19일(수) II부 예배 후 403호
- 3차: 20일(목) 새벽기도회 후 403호

* 면담

- 1차: 28일(금) 오후 8시
- 2차: 29일(토) 오후 7시

동정

- ◆ 이종윤 목사는 18일(화) 장신신대원에서 연합강좌 특강을 하며, 19일(수)에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채플에서 설교한다.
- ◆ 이현주 성도(이영기 장로·이영숙 집사 장녀, 미 스탠포드 대학원)은 올해 총무처의 국제관계전문 5급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 최고득점(82.33점)으로 합격했다. 또 동생인 이대원 성도(미 버클리 대학원)도 이번 시험에 합격했으며 이대중 성도(미 텡스대학원 졸, 대학부)는 지난 해 최연소 합격자로 특별채용 되어 현재 노동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 ◆ 김상철 장로는 11일(화) "밝고 힘찬 나라 운동"을 창립하고 오정수 장로와 함께 발기인 대회에 참여했다.
- ◆ 오늘 봉사자를 위한 점심식사는 이영기 장로·이영숙 집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서리집사 임명에 앞서 살펴보는 집사의 자격

1998년 우리 교회 서리집사의 자격은 1967년 이전 출생자로 입교인으로 흠 없이 2년 이상 경과하고 디모데전서 3장 8-13절에 해당하여 신행이 복음에 합당하고 봉사에 모범된 자라야 한다. 이명해 온 타교회 직분자인 경우 위의 사항에 덧붙여 본 교회 등록 6개월 이상된 자라야 한다.

디모데전서 3장 8-10절을 보면 집사는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맡겨준다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구제와 봉사, 교회 재정의 담당, 그리고 전도하는 일을 전담했다. 그들의 수고와 봉사는 믿음에 바탕한 것이어야 했으며 개인의 성품과 가정생활에도 거치는 것이 없어야 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 11, 12절에는 여자들을 직분자로 세울 때의 덕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자신과 교회에 대해 절제하며 단정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만이 직분자의 자격이 있다.

주님, 이 생명을 구원해 주옵소서! ▶ '97 비전2000운동 태신자 명단

전도자	태신자
무 명	오연승
김복연	이재규
강봉자	강성원
임송자	최경화 김승철 김 별 편경진
김명심	박재성 이희승
박금옥	탁봉남 탁재봉 탁봉심
유복달	방동욱
김인수	박남구
조명녀	김주실 전문창
김선미	김태현 김광수 황민숙 김미혜 김혜원 김성호 김호건
조선영	조길준 김진형 박영애
무 명	박규업 김영심 박정진 이순옥 김용수 김숙호 김극수 김교수
무 명	주소영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97 비전2000운동을 위해
2. 대학수능시험을 치르는 청소년들을 위해
3. 목회자신학세미나와 성경학교에서 배운 것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4. 98년도에 수고할 각 부서 일꾼들을 위해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